

국어과 예비 교사들의 수업 목표 제시 양상에 관한 고찰*

정민주**

<차 례>

- I. 서론
- II. 논의의 전제
- III. 연구 방법
- IV. 예비 교사의 수업 목표 제시 양상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현장 교사의 교과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예비 교사의 교과전문성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예비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교과전문성은 현장 교사에게 요구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학습자의 능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수업을 실행하는 데에 집중된다. 이때 수업 실행은 수업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수업 내용을 구조화하고 표상화하는 방법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러한 수업 실행 능력은 누적되는 현장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되는 것이지만,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cmju@hnu.kr)

현장 교사의 능력이 예비 교사의 경험에 터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나 예비 교사로서 수행한 경험이 수업 현장에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양성교육에서 예비 교사의 수업 실행에 관한 교육은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송용관 외, 2009; 정한호, 2009; 정혜영, 2009).

교사의 수업 실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인 수업 목표¹⁾는 수업 과정을 통해 학생이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취 행동 또는 학습 성과를 의미한다(최지현 외, 2007: 99). 같은 맥락에서 국어과 수업 목표는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능력의 내적·외적 특성²⁾을 단위 수업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³⁾ 국어과 수업 목표가 명확할수록 교사나 학생 모두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수업 목표는 수업 실행에 중요한 변인임이 분명하다. 특히 학습자 입장에서 수업 목표는 수업의 방향을 알려 주고, 해당 차시 수업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를 인식시켜주는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분명하게 인식된 수업 목표는 학습자가 지속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렇듯 수업 목표가 본질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학습 성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를 어떻게 ‘진술’하고 ‘전달’할 것인가는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이는 수업 목표가 학습자에게 의미 있게 인식되기 위해서 교사는 이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킨다.

수업 목표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교사가 수업 목표를 학습자에게 진술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들은 교

- 1) ‘수업 목표’는 ‘교수· 학습 목표’, ‘학습 목표’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교수· 학습 과정이 수업이라는 현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를 계획하는 주체가 교사라는 관점을 반영하고자 ‘수업 목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국어과에서는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능력을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이를 ‘성취기준’으로 명명하고 있다.
- 3) 국어과 수업 목표는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어떤 능력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가 학습자의 학습 결과로 획득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목표로도 간주된다.

사가 수업 목표를 추상적으로 진술할 때보다 명세하게 진술했을 때 학습자의 학업 성취가 더 좋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이원희, 1980 ; 정미영, 1999) 학습자의 수업 목표 인식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학습자들의 수업 목표의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사가 수업 목표를 명세하게 ‘진술’하는 것 못지않게 효과적으로 수업 목표를 ‘전달’하는 것이 학습자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어과 예비 교사들이 수업 목표를 학습자에게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 계획과 실행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수업 목표 제시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국어과 예비 교사들의 수업 목표 제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교사의 수업 실행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논의의 전제

국어과 수업에서 예비 교사가 수업 목표 제시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효과적으로 수업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짚어보고, 국어과 교사가 수업 목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효과적인 수업 목표 제시의 방향

수업 활동의 시작 단계에서 제시되는 수업 목표는 수업의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⁴⁾ 국어과 수업에서는 시작 단계의 주요 활동을 3~6 개로 나누는데 공통적으로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

고 있다.⁵⁾ 이러한 수업 목표는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과서의 단원 목표를 해당 차시에 맞게 재구성한 형태를 띤다. 이는 수업 목표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교과서 단원 목표와 일련의 위계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단원 목표를 바탕으로 해당 차시의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의 몫이다. 교사들은 수업 내용의 범위와 교과서 진도를 고려하여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에 제안된 수업 목표 진술 방식에 따라 수업 목표를 진술한다.⁶⁾ 이러한 수업 목표는 학습자들이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나 학습 성과를 얻어야 하는 학생이나 수업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수업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하는 실행자(實行者)이기 때문이고, 학생은 수업 과정을 통해 수업 내용과 관련한 모종의 국어 능력을 내면화해야 하는 실현자(實現者)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업의 본질적 주체는 학생이며 이를 지원하는 교사는 학습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업 목표를 안내하고, 그들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인식

4) 수업 목표를 학습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수업 본 단계나 마무리 단계에서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업 단계의 주요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교사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다.

5) 3단계로 보는 경우는 동기 유발, 목표 인지, 선수 학습 관련짓기(최지현 외, 2007), 5단계로 설정한 경우는 수업 분위기 조성,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선수 능력 점검, 수업 흐름 제시(임철성, 2006), 6단계 설정한 경우는 주의 환기, 주의 집중, 관심과 흥미 유발, 선수 학습 확인, 학습 목표 확인, 학습 계획 설명(서혁 2006)이 있다.

6) 수업 목표 진술 방식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타일러(Tyler)식 진술 방식은 한 진술문 속에 구체적인 ‘내용’과 ‘도달점 행동’으로 진술하는데, 주로 총괄 평가에서 활용된다. 메이거(Mager)식 진술방식은 ‘도달점 행동’, ‘조건’, ‘수락기준’을 포함하여 진술한다. 이때, ‘조건’은 달성할 행동이 발생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장면을 말하며, ‘내용’을 포함한다. ‘수락기준’은 도달점 행동의 결과가 성공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가네(Gagné)식 진술방식은 ‘도달점 행동’, ‘조건’, ‘내용’으로 진술하며, 도달점 행동의 경우, 보조동사와 핵심동사로 구성한다. 그론룬드(Gronlund)식 진술 방식은 ‘내용’과 ‘도달점 행동’으로 진술하되, 목표를 일반적 목표와 명세적(하위)목표로 나누어 진술한다. 이때 일반 목표는 내현적인 행동과 내용으로, 명세적 목표는 외현적 행동과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현석과 주동범(2009 : 372 재인용).

하도록 전략적인 방법들을 찾아 익히며, 나아가 그러한 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국어과 수업을 위해서 교사는 수업 목표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 목표를 인지하도록 수업 목표를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교사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과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제시해야 한다. 기존의 국어과 수업에서는 초기 행동주의 심리학을 적용한 동기 이론에 터하여 동기 유발 활동과 수업 목표 제시를 각각의 독립적인 하위 수업 활동으로 이해하여 각 활동의 실행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유능한 국어 교사들은 동기 유발 전략과 학습 목표를 연결하는 전략을 구사한다(김승현과 박재현, 2010).⁷⁾ 이는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활동이 단순한 낭독이나 읽는 행위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예비 초등 교사의 교수 화법을 분석한 민병곤(2008)에서도 수업 목표가 기존의 학습 내용이나 학습자의 생활과 맥락을 가질 때, 학습자들이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게 될 것임을 지적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학습자가 수업 목표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사는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과정에 학습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습자가 이전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이번 차시 수업 목표를 예상하고, 이를 자신의 말(언어)로 발화하도록 유도하여 수업 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습자의 수업 목표 공유에 주목한 권성룡(2011)의 논의는 본 논의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그는 성공적인 수학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협력적으로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수학과 예비 초등 교사들이 수업 목표를 학습자와 공유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았다.

교사가 학습자와 수업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수업의 본질적 주체인

7) 김승현과 박재현(2010)에서는 국어과 우수 수업 동영상의 수업 도입부를 분석하여 유능한 국어과 교사의 의사소통 전략을 살핀 바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유능한 교사들은 선수 학습에서 학습 목표를 도출하거나, 동기 유발과 학습 목표를 연결하거나, 혹은 학습 목표를 본시 학습 안내와 연결하는 소통 전략을 구사한다고 밝혔다.

학습자가 수업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수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오늘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수업 활동을 하게 되는지를 능동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사와 학습자가 수업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유의미한 수업 목표 제시 전략이 될 수 있다.

2.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수업 목표 제시 전략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사는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욕구, 즉 학습 동기를 유발하면서 수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학습자가 수업 목표를 능동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교수적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학습 동기 유발을 통해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것은 수업의 본질적 주체를 교사가 아닌 학습자로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학습자는 교사에 의해 잘 짜인 수업을 따르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수업 목표와 수업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이다(임철성, 2006).⁸⁾ 이런 관점에서 이 절에서는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유발 요인들을 살펴보고, 각 요인들이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전의 학습 동기 유발 전략들의 한계를 지적한 켈러(Keller, 1997 ; 켈러와 송상호, 2008 재인용)에서는 수많은 이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동기 요소를 크게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 네 가지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하위 요소에 따라 교수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⁹⁾ 이 범주들은 수

8) 임철성(2006 : 179)에서는 교사가 수업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동기 유발, 선수 학습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교사의 주도 아래 잘 짜인 수업이며, 이는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9) ARCS 이론의 구성 체계는 켈러 외(2008)와 조용개 외(2009)에서 사용한 번역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업 설계의 전 과정, 전체 학급, 한 차시 수업 등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며, 교사가 학습자 특성과 수업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과 수업에서 유용한 교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동기 유발 요소들은 수업 목표를 전략적으로 도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먼저 학습자의 ‘주의집중’ 요소를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주의집중’ 요소는 새롭고 신기한 사건이나 사실을 제시하거나 탐구적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또는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관심을 끌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매체를 사용하는 것, 또는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수업 목표 진술 방식의 변화를 주는 것 등은 주의집중을 활용한 수업 목표 제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수업 목표와 분리된 단순한 주의집중 전략은 지속성이 없으므로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되,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수업 목표와 관련지을 수 있는 교사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도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수업 목표 제시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관련성’ 요소와 연결하여 수업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관련성’ 요소는 학습자에게 친숙한 경험과 가치를 활용하거나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을 언급하면서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의 과거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거나 수업 목표를 통해 학습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유용성을 언급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들의 일상생활을 활용하거나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경

학습동기요소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하위 요소	지각적 주의 탐구적 주의 다양한 변화	친밀성 목적지향성 동기 일치	성공 기회 학습 요건 개인 통제	자연적 결과 긍정적 결과 공정성 강조

힘을 끌어들이 수 있는 사건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제시하거나 또는 수업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학습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이 현재 또는 미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는 것은 학습자의 관련성을 활용한 수업 목표 제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자신감’과 연결하여 수업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자신감’ 요소는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면서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학습자들은 새로운 수업을 접할 때, 이 수업에서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야 하고,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수업에 참여한다(조영개 외, 2009). 새로운 주제와 낯선 수업 내용에 대해 갖는 막연한 두려움은 오히려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감 결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게 되며, 자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지를 미리 알고, 이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 수업 목표에 대한 자신감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목표를 문제 상황으로 설정하고, 이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해 주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나아가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학습자의 어려움이나 학습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오류를 제시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제공하는 것도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수업 목표 제시 전략이 될 수 있다.

넷째, 학습자의 ‘만족감’ 요소와 연결하여 수업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만족감’ 요소는 학습자 자신의 학습 경험과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말한다(조영개 외, 2009). 이런 면에서 보면 만족감은 수업을 마친 결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기대로 보이지만, 수업 목표를 제시할 때에도 얼마든지 학습자의 만족감을 활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교사는 수업 목표를 달성할 경우 어떤 외적 보상을 해 줄 것인지를 약속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보상에 의한 동기 유발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의 내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제공하는

동영상이나 자료를 통해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을 유추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성취감을 현재화하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학습 동기 유발 요소에 따른 수업 목표 제시 전략의 예

학습 동기 유발 요소	수업 목표 제시 전략의 예
주의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시청각 자료 동원하기 • 지적 갈등을 제공하여 탐구심 유발하기 •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교사의 경험 활용하기 •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형식에 변화주기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목표와 관련된 학습자의 일상생활(삶)을 동원하기 • 수업 목표와 관련된 학습자의 이전 경험이나 과거 지식 활용하기 • 수업 목표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인물이나 작품 소개하기 • 학습자 입장에서 수업 목표의 유용성이나 가치 언급하기
자신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목표와 관련된 예시를 주고 해결할 기회 제공하기 • 수업 목표를 문제 상황으로 제시한 뒤 해결 방법 알려주기 • 수업 목표와 관련된 학습자 오류를 보여주고 해결 장면 제시하기
만족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목표를 달성한 후에 제공할 외적 보상 언급하기 • 학습자가 수업 목표를 발견하도록 단서를 제공하고 피드백하기 • 수업 목표를 달성한 후에 얻게 될 성취감을 현재화하기

앞서 학습자가 수업 목표를 능동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과정에 학습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교사가 수업 목표를 제시할 때 학습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교사와 학습자의 수업 목표 공유 방식이라 부르고자 한다. 교사와 학습자의 수업 목표 공유 방식은 수업을 설계하는 주체가 교사인 점을 고려하여 ‘교사 일방형’, ‘교사 주도형’, ‘교사·학습자 대등형’, ‘교사 지원형’ 네 가지 유형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¹⁰⁾

10) 여기서 사용한 네 가지 용어는 최영환(2008 : 430)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모형 적용을 위한 기준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교사 일방형’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을 말한다. 예컨대, 교사가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수업 목표를 판서하고, 이를 교사 자신이 읽고 설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 주도형’은 여전히 교사가 주도하여 수업 목표를 제시하지만, 제한적이거나 학생을 수동적으로 참여시켜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유형을 말한다. 예컨대, 학생이 수업 목표를 읽도록 한 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목표를 설명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교사·학습자 대등형’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교사가 수업 목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거나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의 답변을 활용하여 수업 목표에 접근해 가는 유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교사 지원형’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수업 목표를 발견하고, 학습자의 언어(말)로 수업 목표를 설정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가 해당 차시 수업 목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선수 학습 내용이나 수업 목표와 관련한 단서만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수업 목표를 자발적으로 추측해 내도록 지원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국어과 예비 교사들이 실제 수업 상황에서 수업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 실행 양상을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국어과 중등 예비 교사들이 실제로 실행한 수업 사례를 연구 자료로 삼았다. 연구 자료는 대전 지역 H대학의 사범대학 4학년 학생들이 교육실습 기간(2011년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에 수행한 수업 녹화 자료 48편이다. 이 연구 자료들은 예비 교사들이 실습 학교의 수업 진도에 맞춰 실행한 수업들

로써 실습 학교의 담당 국어 교사가 지정해 준 단원을 예비 교사들이 맡아 수업한 내용을 녹화한 것이다.¹¹⁾

본고는 수업 실행 관점에서 수업 목표 제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비 교사의 수업 실행 계획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예비 교사들이 수업 전에 직접 작성한 수업 지도안을 자료에 포함하였다. 더불어 그들의 실행 양상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예비 교사들이 수업 직후에 작성한 자기 평가서도 연구 자료에 포함하였다.

2. 연구 문제 및 분석 자료

본고는 효과적인 수업 목표 제시에 관한 앞의 논의에 따라, 국어과 예비 교사들이 수업 목표를 제시할 때 동기 유발 요소와 어떻게 연계하는지 그 실행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실제 교수 상황에서 포착되는 예비 교사의 교수 행위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학습 동기 유발 전략과 수업 목표의 연계 방식,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수업 목표 공유 방식 두 가지 차원에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수업 지도안에 나타난 수업 목표 제시 양상을 살펴본 후, 2차로 예비 교사의 수업 녹화 자료를 통해 수업 목표 제시 양상을 분석하였다. 수업 녹화 자료는 수업 전사본과 수업 지도안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살피되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기록해 두었다가 해당 예비 교사의 수업 지도안과 평가서를 읽고, 3차로 수업 녹화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복하였다. 본고에서 살핀 구체적인 연구 문제 및 분석 자료는 [표 2]와 같다.

11) 연구자는 해당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1년 1학기에 처음 강의를 맡았으며, 교육 실습을 나가기 전에 수업 지도안 작성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한 차례 지도한 바 있다. 이 외에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 및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사전 처리는 없었음을 밝힌다.

[표 2] 연구 문제 및 분석 자료

	연구 문제	분석 자료
1. 계획	가. 수업 목표 제시 활동이 있는가?	수업 지도안
	나. 수업 목표와 동기 유발 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했는가?	
2. 실행	가. 동기 유발 활동과 수업 목표를 어떻게 연계하여 제시하는가?	수업 녹화 자료 및 전사본
	나. 교사와 학생은 수업 목표를 어떻게 공유하는가?	수업지도안 자기평가서

IV. 예비 교사의 수업 목표 제시 양상

1. 수업 계획에 나타난 수업 목표 제시 양상

국어과 예비 교사 48명의 수업 지도안과 수업 녹화 자료 및 자기 평가를 통해 수업 목표 제시에 관한 실행 양상을 분석하였다. 예비 교사들이 계획 단계에서 수업 목표 제시 활동을 포함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업 지도안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48편의 수업 지도안 중 1편을 제외하고 모두 수업 도입부에서 수업 목표 제시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업 목표 제시 활동을 포함하지 않은 1편을 제외한 47편의 수업 사례를 대상으로 수업 목표 제시 계획을 살펴보았다.

먼저, 수업 계획 단계에서의 수업 목표 제시 양상은 예비 교사들이 학습자의 능동적인 이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학습 동기 유발 활동과 수업 목표 제시의 연계 방식을 살펴보았다. 두 활동의 관계는 예비 교사들이 수업 지도안에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두 활동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총 42편이었으며, 동기 유발 활동을 아예 포함하지 않아 두 활동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5편으로 확인되었다. 동기 유발 활동과 수

업 목표 제시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수업 지도안의 예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자료4의 수업 지도안의 일부

학습 목표 ¹²⁾		상대를 고려하여 화제를 선정하고, 말하기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단계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상략)					
도입	동기 유발	• 친구와 말로 인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질문한다. (말하는 방식과 관련지어 답하도록 유도한다.)	• 말로 인한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떠올려 보고 대답해 본다.	3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고 기억한다.	1	• PPT
(하략)					

위의 자료는 ‘상대를 고려하여 화제를 선정하고, 말하기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를 수업 목표로 한 수업 지도안의 일부이다. 수업 지도안을 작성한 예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말로 인한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떠올리고 발표하는 것을 동기 유발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예비 교사는 제시한 상황을 학습자 개인의 경험과 연결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수업 목표를 능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한편, 수업 목표 제시 활동에 동기 유발 활동을 포함하지 않은 수업 지도안의 경우도 5편으로 확인되었는데 5편 모두 전시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해당 차시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표 4]와 같은 형태를 보였다.

12) 예비 교사가 작성한 수업 지도안의 경우, 그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제시하고자 ‘학습 목표’ 용어를 ‘수업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표 4] 자료 42의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목표		대화 상대와 상황에 맞는 말하기 방식을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말할 수 있다.			
단계	학습 흐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상략)					
도입	선수 학습 확인	• 지난 시간에 배운 말하기 방법과 상황에 맞게 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기억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	3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한다. <div>■ 학습 목표 • 대화 상대와 상황에 맞는 말하기 방식을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말할 수 있다.</div>	•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이해한다.	1	• 학습목표를 판서로 제시
(하략)					

위의 수업 지도안을 작성한 예비 교사는 수업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학습자 입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위의 수업 지도안을 작성한 예비 교사의 수업 직후 평가서이다.

[자료 42의 수업 직후 자기 평가서의 일부]

판서가 쉽지 않아서 컴퓨터로 출력한 학습 목표를 칠판에 붙여 놓고, ppt를 이용하여 다시 제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읽도록 지시할 때, ‘시작’이라고 말해 주어 학생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의 동기가 결여된 수업이었다. 이전 차시에서는 소단원을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관련된 동영상으로 동기 유발을 하였는데 본 수업은 지난 차시와 연결되어 이론을 정리하고 활동을 해 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학습자의 동기 유발 등을 간과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하략)

이 평가서를 작성한 예비 교사는 수업 목표를 통일된 목소리로 읽도

록 학습자에게 잘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동기가 유발되지 않았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를 ‘보여주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지시하는’ 교사의 행위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에서 수업 목표는 학습자가 읽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대상임을 예비 교사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수업 실행에서 나타난 수업 목표 제시 양상

앞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수업 목표 제시와 동기 유발 활동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업 자료 42편을 대상으로 그 실행 양상을 살펴보았다. 수업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업 목표 제시와 동기 유발 활동의 배치 양상과 동기 유발 요소에 따른 수업 목표 제시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가. 수업 목표와 동기 유발 활동의 배치 양상

먼저 예비 교사들의 수업 목표 제시와 학습 동기 유발의 배치 양상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동기 유발 활동+수업 목표 제시(이하 ‘선(先) 동기-후(後) 목표’) 또는 ‘수업 목표 확인+동기 유발 활동(이하 ‘선(先) 목표-후(後) 동기’)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동기 유발 활동에는 동영상이나 사진, 그림 자료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비 교사들이 동영상이나 사진, 그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수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총 42편의 수업 사례 중,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33편,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9편이었다. 이를 기술 통계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수업 목표와 동기 유발 활동의 배치 순서

	선(先) 동기- 후(後) 목표	선(先) 목표- 후(後) 동기	
인원(명)	33	9	42
비율(%)	78.6	21.4	10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은 주로 동기 유발 활동 후에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선(先) 동기-후(後) 목표’의 제시 순서를 보여주는 수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료 4_수업 전사본의 일부]

(과워포인트 그림으로 상황 제시)

교사 : 그렇지.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네들이 애초에 왜 싸웠을 것 같아요?

학생 : 자기 의견이 다르니까.

교사 : 그렇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 서로 말로 인한 작은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학생 : 갈등

교사 : 그렇지. ㉢말로 인한 갈등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긴 적 있었을까? 한 사람만 말해 볼까? 경아가 일어나서 말해 보자.

학생 : 예전에 제 친구하고 말을 하다가 잘 못 들어가지고 오해를 해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중략)

교사 :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말하는 상황, 또는 말하는 방식, 또는 대화하는 상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고려를 해서 말을 했다면 과연 싸웠을까?

학생 : 아니오.

교사 : 그래, 안 싸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업이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대화를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래서 (PPT 자료 화면을 보며) 학습 목표를 한번 크게 읽어보자.

위의 수업을 진행한 예비 교사는 학생들이 즐겨보는 웹툰 중에서 두 주인공이 다룬 상황을 제시하고, ㉠~㉢로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 웹툰의 상황을 학생들의 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웹툰 만화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과 ㉣의 발화를 통해 제시된 상황을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문제와 관련시킨 것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면서 수업 목표를 유기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예비 교사 중 일부는 수업 목표를 먼저 제시한 다음, 그 이후에 동기 유발을 시도하는 이른바 ‘선(先) 목표-후(後) 동기’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제시 방식은 수업 목표가 이미 제시된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을 시도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의 수업 발화는 이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

[자료 41_수업 전사본의 일부]

교사 : 그렇죠. 누이의 죽음을 추도하는 노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가 신난다 재미난다 슬프다예요?

학생 : 슬프다

교사 : 자 슬픈데 자 과연 슬퍼만 했을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노래 하나 준비했어요. 노래 한국 준비했는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시는 뭐와 같다? 노래와 같다고 했죠? 시는 노래와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혹시 타이거 JK 알아요? 어떤 사람이죠?

학생 : 힙합

교사 : 힙합 대부죠. ㉡타이거 JK의 노래를 듣고 여러분이 한번 어떤 슬픔을 한번 느껴보는데 이글에서 가사가 어떤 느낌이인지, 가사를 유 의해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들려주는 대중가요 듣기)

교사 : 자, 가사가 어땠나요?

학생 : ...

교사 : 마지막에 가사가 어딜 간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노래는 타이거JK가 할머니의 부음 죽음을 8시 45분경에 들어서 그 느낌을 그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여 만든 게 이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잃었죠

학생 : 할머니

교사 : 이 사람은 슬프기는 하지만, 뭘 지었죠?

학생 : 노래요

교사 : 노래를 지었죠. ㉠우리 혹시 슬픈 상황에 있을 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그것을 표현하거나 극복하려고 하죠? 자 그럼 됐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알려주는 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의 수업 사례는 ‘슬픈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다’를 수업 목표로 설정한 수업의 일부이다. ㉠의 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업을 진행한 예비 교사는 수업 목표를 먼저 설명한 뒤에, 학습할 ‘제망매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대중가요의 일부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과 같은 교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중가요를 듣고 난 학습자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예비 교사는 ㉡과 ㉢의 발화를 통해 대중가요 자료와 수업 목표를 연결하려는 발화를 함으로써 이 활동을 수업과 맥락화하였다. 이는 예비 교사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예비 교사의 의도와 달리, 학생들에게 들려준 대중가요는 수업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수업 내용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 때문에 학습자의 능동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수업 목표를 제시한 후 동기 유발 활동을 제시한 다른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비 교사들은 자신이 제시한 동영상이나 그림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경우, ㉣과 ㉤의 발화 같이 교사 스스로 해당 자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이 자료를 왜 제시했는지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실은 수업을 실행한 예비 교사의 수업 직후 평가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자료 41_수업 직후 평가서의 일부]

학습 목표 제시 후 흥미 유발로 바로 넘어가도록 설정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 그것보다는 스키마를 제공한 뒤 자연스럽게 흥미 유발로 넘어 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학생들이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슬픔에 감정이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결국 구두로 노래의 의미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위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수업 목표가 제시된 상황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先) 목표-후(後) 동기’ 구조에서는 동기 유발 활동이 교사의 의도대로 학습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업 목표 제시와 동기 유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결국 교사들은 자신이 왜 이 동영상상을 보여 주었는지를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그럴 경우 수업 목표에 대한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이해를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 수업 목표와 동기 유발 활동의 연계 양상

본격적으로 수업 목표와 동기 유발 활동을 어떻게 연계하는지 그 양상을 살피기 위해 예비 교사들이 적용한 학습 동기 유발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켈러(Keller)의 학습 동기 유발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어과 예비 교사들은 ‘주의집중(A)’, ‘관련성(R)’, ‘자신감(C)’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의 요소만 활용하는 경우와 두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두 가지 양상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의집중’ 요소를 활용한 수업이 16편, ‘주의집중’과 ‘관련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수업이 24편, ‘주의집중’과 ‘자신감’을 활용한 수업이 2편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주의집중 요소를 활용한 수업과 관련성 요소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문제 양상도 함께 포착되었다. 수업 자료에서 확인된 학습 동기 유발 요소에 따른 수업 목표 제시 양상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 학습자의 흥미(A)+수업 목표 도출
- ㉡ 학습자의 흥미(A)+학습자 삶/삶과의 관련성(R)+수업 목표 도출
- ㉢ 학습자의 흥미(A)+학습자의 자신감(C)+수업 목표 도출

㉠ 유형은 TV 방송 프로그램, 광고, 대중가요, 웹툰, 동영상,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이나 그림 등을 통해 학습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고,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 목표를 도출한다. 예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9_수업 전사본의 일부]

교사 : 선생님이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 배울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봅시다.

(TV 속의 TV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의견 장면 제시)

교사 :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어요?

학생 : 세바퀴요

교사 : 네, 세바퀴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어요. ㉡선생님이 이걸 왜 보여줬을까? 사람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죠? 오늘 배울 내용도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오늘 배울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읽었던 무슨 작품이죠? 네, ㉢꽃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고, 친구들과 감상을 비교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 보겠습니다.

위에 제시된 사례는 ‘꽃신’이라는 문학 작품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다’를 수업 목표로 설정한 수업의 일부이다. 이 수업에서 예비 교사는 TV 프로그램의 일부를 동영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그리고 ㉠과 같이 학생들에게 동영상의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질문한 뒤, 교사가 이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를 ㉡과 같이 제시하고 수업 목표를 ㉢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 수업에서 흥미를 유발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동영상 내용을 수업 목표와 연결하는 방식은 적절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 차시의 수업 목표가 작품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

는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영상에 담고 있는 내용은 수업 목표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다. 예비 교사가 제시한 TV 프로그램은 이른바 옴부즈맨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송 자체 감시 프로그램이다. 그 중 ‘시청자의 의견’이라는 코너는 한 주 동안 해당 방송사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을 본 시청자들의 비판적 평가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수업 목표에 담긴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은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시청자의 ‘비판적 평가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제시된 자료가 흥미 유발에만 그쳐 수업 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지 못한다는 문제와 나아가 학습자가 수업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자료14_수업 전사본의 일부]

(개그콘서트 ‘생활의 발견’ 코너 동영상 제시)

교사 : 잘 봤나요?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런 개그 프로그램을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배우는 대단원의 제목이 뭐죠?

학생 : 이런 날 이런 글

교사 : ㉡그거 말고 상황에 맞는 말과 글이죠. 근데 저 두 남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별하는 상황이죠. 근데 대화하는 장소는 어디죠?

학생 : 삼겹살집

교사 : 그럼 대화 상황하고 대화 내용하고 맞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조금 안 맞죠.. 대화 내용도 어때요? 이별 이야기 하다가 차 주문하고 어수선한 상황이죠? ㉢오늘은 우리가 여러 행사를 할 때 어떤 행사에 맞는 글을 써야 하는데 어떤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식사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상황에 맞는 말과 글을 써야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동영상을 보여준 거니까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살펴봅시다.

위의 사례는 ‘식사문의 개념과 의의를 말할 수 있다’를 수업 목표로 하는 수업의 일부이다. 그런데 위 대화를 보면, 예비 교사는 해당 차시의 수업 목표가 아닌 교과서 대단원 제목과 관련하여 동기 유발 상황을 제시

하고 있다. 제시한 동영상상이 ‘개그 콘서트’라는 TV 코미디 프로그램이어서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수업 목표와 동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수업 목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예비 교사들이 학습자의 흥미와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고려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보고한 박기용 외(2009)의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유형은 본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동영상이나 그림 자료를 사용한 점에서 ㉡와 동일하지만, 그 내용을 학습자와 친숙한 인물이나 사건으로 제시하거나 상황이나 내용을 학습자의 과거 지식이나 생활과 관련짓는 과정을 거쳐 수업 목표를 도출한다는 점에서는 ㉡와 차이가 있다. 사례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8의 수업 전사본의 일부]

교사 : ㉠선생님이 지금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상황

인지 소녀의 심정은 어떤지 소녀에게 어떤 말이나 어떤 몸짓을 건

네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학급 학생들이 연기한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 제시)

학생들 : (시끄러운 웃음 소리)

교사 : 자, 조용... 이 동영상이 어떤 상황인거 같아요? 우리 나연이가 말해 볼까요?

학생 :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한테 차였어요.

교사 : 그렇죠 좋아하는 오빠한테 고백을 했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학생 : 차였어요.

교사 : 소녀의 심정은 어떨까?

학생 : 슬프고 짜증나고.

교사 : 슬프고 짜증도 나고. ㉠여러분의 친구라면 그런 소녀에게 어떤 말을 해 주면 좋을까요? 손들고 발표해 보자.

학생 : 세상에 남자는 많아.

교사 : 그래. 세상에 남자는 많아 이렇게 말해 줄 수 있겠죠 또 어떤 말을 해 주면 좋을까?

학생 : 그 오빠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교사 : 그렇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줄 수 있어요
(중략)

교사 : ㉔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격려나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학습목표를 읽어볼까요? 시작.

학생 :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격려나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위의 수업을 진행한 예비 교사는 짝사랑하는 오빠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수업 목표와 연결하였다. 제시한 동영상은 학생들의 흥미와 친근감을 유발하기 위해 예비 교사가 사전에 학급 학생들과 제작한 것이며, 동영상에서 연출된 상황은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짝사랑하는 이성에게 고백하는 상황’을 담았다. 예비 교사의 의도대로 학생들은 동영상에 흥미를 보였고, 이후 동영상의 내용과 관련된 예비 교사의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㉑의 발화는 예비 교사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동영상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였음을 말해 주며, ㉒의 발화는 동영상에 제시된 상황을 학습자 개인의 상황으로 전이시키려는 발화라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제시된 상황을 자기 주변의 상황으로 개인화하면서 교사가 제시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학습자에게 친근감을 유발한 것으로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 뒤, 동기 유발의 ‘관련성’ 요소를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㉓의 유형 중에는 학습자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는 문제 양상도 발견되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27_수업 전사본의 일부]

교사 : ㉑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e채널의 한센인 관련 동영상 제시)

교사 :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학생들 : 한센인

교사 : ㉠한센인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학생들 : 아니오.

교사 : ㉡아 그럼, 문둥병은 들어 보셨나요?

학생들 : 예.

교사 :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인데요.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알지요?

학생 : 아니오

교사 : 일종의 피부병이네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지금 의학 기술로는 이 한센인들의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염도 전혀 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피하고 따로 소외시키고 또 도와주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꼭 누구와 ‘달밤’의 누구와 닮은 것 같나요?

학생들 : 황수권

위의 수업을 진행한 예비 교사는 ‘달밤’이라는 작품과 관련하여 한센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동영상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달밤’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과 한센인의 삶을 관련짓고자 한 예비 교사의 의도를 반영한다. 교과서에서 다룬 작품과 관련하여 동영상상을 제시한 것은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유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 발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 발화를 보면, 예비 교사는 학습자들이 ‘한센인의 삶’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센인에 대한 학습자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예비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습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결국 예비 교사는 ㉣과 같이 수업 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말았다. 이로 보아 학습자의 과거 지식을 활용하려 했던 예비 교사의 의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예비 교사가 학습자의 과거 지식이나 경험에 적절하게 접근했다면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수월하게 수업 목표를 도출했을 것이다.

㉣ 유형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동영상이나 그림을 제시한 후,

상황에 제시된 문제를 학생들이 쉽게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자신감 요소를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양상을 말한다. 이 유형은 예비 교사의 수업 중에 2편 밖에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수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수업 발화의 일부이다.

[자료 22_수업 전사본의 일부]

교사 : 그럼, 맞춤법 왜 지켜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그림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그림을 PPT로 제시)

학생들 : 하하하. 의미전달이 잘 안되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교사 : 그렇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랑,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랑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시는 거잖아. 이게 원래 전달하려는 의미잖아.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따라서 이런 이미지로 전달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지가 말한 대로 의미전달이 잘 되도록 우리는 맞춤법을 지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은 선생님이 문장 세 개를 줄 텐데 같이 보자.

학생 :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략)

교사 : 그렇지. 이게 탕숙 아니라 탕수육이지. 자 이거는 뭐가 틀렸는지 알아맞혀봐.

학생 : 싸여

교사 : 똑똑한데. 그렇지 썰여가 아니지 싸여가 맞지. 썰여는 책 여러 개가 썰여 있다는 거고 이거는 둘러져 있다는 거니까. 썰여가 아니라 싸여겠지. ㉡그래서 우리가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자.

(중략)

교사 :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띄어쓰기를 통해서 한 가지 의미로 함축시켜 주기 때문에 읽는 이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 아까 고양이 가죽을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같이 읽어볼까?

학생 :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까닭을 안다.

교사 : 왜 써야 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지?

이 사례의 수업 목표는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이다. 위의 수업을 진행한 예비 교사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길거리 간판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틀린 맞춤법을 쉽게 발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띄어쓰기가 틀린 몇 가지 문장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길거리 사진과 같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수업 목표와 관련된 문법 문제를 학생들이 쉽게 해결하는 경험을 하도록 의도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자신감을 심어주는 전략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능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 교사와 학습자의 수업 목표 공유 양상

마지막으로 예비 교사들이 동기 유발 요소를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도출할 때, 그 과정을 학습자와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사와 학습자의 참여 방식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교사 주도형’ 36편과 ‘교사·학습자 대등형’이 6편으로 예비 교사들은 주로 교사 주도적으로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사 주도형’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읽거나 교사가 수업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은 수업 목표를 제시할 때 학습자들을 수업 목표 읽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자료31_예비 교사 L의 수업 발화]

(동영상 제시)

교사 :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봤습니까?

학생 :

교사 :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의경이 다른 사람들을 시민들을 평화롭게 집회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물대포로 쏘고 아니면 욕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의경이 단순히 나빠서 그런 걸까요? 다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무슨 사진인지 보입니까? 의경이 잠깐 찰나의 순간을 사진에 담았는데 의경이 여기 한가운데서 쇠파이프랑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시내 한가운데서 아무 방패막이 없이 맞고 있어요. 이런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자, 의경이 쓴 입장에서 시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낭송을 해 드릴게요. (시 낭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나쁜 걸까? 우리는 흔히 세상에 진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수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주제를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읽어 볼까요?

위의 수업 대화를 보면, 예비 교사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들의 답변이나 반응을 유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설명 발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의 발화에서 보듯이, 수업 목표 역시 예비 교사가 먼저 진술한 후, 학생들이 이를 반복하도록 지시하는 등 교사 주도적인 양상을 보였다. 물론 ㉠의 발화에 대하여 학생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예비 교사가 설명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다시 했어야 한다. 이러한 수업 목표 제시 방식은 수업 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이해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렇듯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현상은 예비 교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학생들

의 반응이 자신의 예상과 달랐을 때도 나타나는 양상이다. 예비 교사들이 수업 실행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고한 박기용 외(2009)에서는 ‘학생의 반응이 예상과 차이가 날 때 당황한다’라는 반응과 ‘적절한 발문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반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비 교사들의 수업 실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강조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학생 대등형’은 교사가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 목표 진술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은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오늘 배울 수업 목표와 내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사·학생 대등형’ 방식이 ‘교사 주도형’ 방식보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이해를 지원하는 수업 목표 제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24_수업 전사본의 일부]

교사 : 우리는 3단원 제목처럼 비판의 기술을 배울 거예요. ㉠**비판의 기술**
이 뭔데요?

학생 : 비판하는 거, 욕하는 거

교사 : 3단원에서 욕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봐야겠다. 어떤 욕이 있나.

학생 : 찌르는 거요, 헐뜯다, 단점 말하는 거

교사 : 네, 단점을 말하는 거요? ㉡**단점을 말하는 게 비판인가요?** 물론 단점을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단점을 말할 수도 있는데 단점을 어떻게 말하는 건데요?

학생 : 논리적으로요, 직설적으로요, 단도직입적으로요, 돌려서요

교사 : 네, 비판에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지, 돌려 말하는 건지 단원의 창에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할게요.

위의 수업에서는 예비 교사가 수업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 목표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교사는 학생들의 다소 적절하지 않은 답변도 인정해 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서 수업 목표를 찾도록 유도하였는데, 이는 수업 목표를 학생과 대등하게 공유하려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양상은 교사들이 수업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이해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수업 목표 제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수업 목표의 지향점은 학습자의 지식, 사고, 행동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가 효과적으로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학습자가 해당 수업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수업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업에 참여한다면, 교사는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수업 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동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¹³⁾

이런 맥락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교수 전략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 교사의 수업 실행 양상 연구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수업 목표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습 동기 유발 전략과 연계하여 수업 목표를 도출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국어과 예비 교사의 수업 목표 제시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48편의 수업 자료 중 42편의 수업에서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13)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목표가 인간의 행동을 조정해 준다고 보고 있다. 즉, 목표는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켜 불필요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게 한다(Bandura, 1986, 권성룡, 2011 재인용)

데 동기 유발 활동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가운데 33편이 동기 유발 활동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앞서 선(先) 동기 유발-후(後) 목표 제시 순서를 보이는 42편의 수업을 대상으로 예비 교사들이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데 활용한 동기 유발 요소를 분석한 결과,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요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요소를 단일하게 적용하느냐, 복합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양상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습자의 흥미를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방식, 학습자의 흥미와 관련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방식, 학습자의 흥미와 자신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방식을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 동기 유발 활동이 단순한 흥미 유발로 그치는 경우와 제시된 동기 유발 자료가 학습자의 과거 지식이나 경험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문제 양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에게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교사와 학습자의 수업 목표 공유 방식을 살펴본 결과, ‘교사 주도형’과 ‘교사·학생 대등형’ 두 가지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수업 대화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반응이 예상과 달리 소극적일 때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예비 교사들이 학습자를 수업에 끌어들이 수 있는 이른바 수업 실행 능력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비 교사들의 수업 목표 제시 양상을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교사 교육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업 실행 능력 제고 차원에서 국어과 예비 교사들이 학습 동기 유발 활동과 수업 목표 제시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이를 예비 교사들에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 예비 교사들의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실행 장면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동기 유발 요소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계획대로 실행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비 교사들은 여전히 학습자의 흥미나 관련

성을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데 문제점을 보였으며, ‘자신감’이나 ‘만족감’ 요소와 연계하여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하였다. 이러한 점은 예비 교사들이 국어과 수업 목표와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훈련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교수 화법 전략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어과 예비 교사들은 수업 목표를 공유하는 데 학습자들을 제한적으로 참여시키고, 준비한 자료를 교사 자신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화법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내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만회하려는 교사의 의도로 보이며, 이렇게 제시되는 교사의 설명은 끝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예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문제 상황을 제공하되 그에 대한 답은 학습자들이 사고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 전략이나 학생들의 사고 과정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발화 전략을 익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예비 교사의 수업 목표 제시 양상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어, 예비 교사들이 교실 환경에서 겪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제약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추후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국어과 예비 교사의 수업 실행을 살핀 논의가 없었다는 점과 국어과 예비 교사의 수업 실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예비 교사 교육의 실질적인 지도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1. 10. 31. 투고되었으며, 2011. 11. 03.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1.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현석·주동범(2009), 『현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학지사.
- 권성룡(2011), “예비초등수학교사의 수업목표 공유 활동의 고찰”, 『수학교육』 제25집 1호,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E, 221-243pp.
- 김승현·박재현(2010), “국어 수업 도입부의 소통 전략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5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63-195pp.
- 민병곤(2008), “초등학교 예비 교사의 교수 화법 분석 : 교대 3학년 학생의 모의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3집, 국어교육학회, 367-404pp.
- 박기용·배영직·강이철(2009), “교육실습에서 예비 교사의 수업 설계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6권 3호, 한국교원교육학회, 169-197pp.
- 서 혁(2006), “국어과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 모형 적용의 원리”, 『국어교육학연구』 제26집, 국어교육학회, 199-225pp.
- 송용관·변정현(2009), “예비체육교사들의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과 경험”,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2권 1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21-246pp.
- 이금주(200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목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칠성(2006), “국어과 도입 수업의 교육공학적 접근”, 『국어교과교육연구』 제11집, 국어교과교육연구회, 173-203pp.
- 정미영(1999), “수업목표 제시방식에 따라 학업성취 및 수학효능감에 미치는 효과—확률과 통계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한호(2009), “교육실습과정에서 나타난 중등 예비교사들의 수업 설계 실태”, 『교육과정평가 연구』 제12권 2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0pp.
- 정혜영(2008) “교육실습을 통한 교육실습생의 교육신념 변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21권 2호, 한국초등교육학회, 235-257pp.
- 조용개·심지자·이은화·이재경·손연아·박선희(2009),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 전략』, 학지사.
- 최영환(2008),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과 수업 설계”,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6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419-444pp.
- 최지현·서혁·심영택·이도영·최미숙·김정자·김혜정(2007),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 켈러·송상호(2008), 『매력적인 수업 설계』, 교육과학사.
- Gagné, R., Wager, W., Golas, K., Keller, J./송상호 외 공역(2007), 『수업설계의 원리』 5판, 아카데미프레스.

<초록>

국어과 예비 교사들의 수업 목표 제시 양상에 관한 고찰

정민주

이 연구는 예비 교사의 수업 실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어과 예비 교사의 수업 목표 제시 양상을 고찰하였다.

효과적으로 수업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수업 목표를 능동적으로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 동기 유발 활동과 연계하여 수업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그 과정에 학습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비 교사들의 수업 실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업 목표와 동기 유발 활동의 배치 양상과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이라는 동기 유발 요소를 활용한 수업 목표 제시 양상 세 가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각 양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그리고 예비 교사들이 수업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에 학습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살펴본 결과, ‘교사 주도형’과 ‘교사·학생 대등형’ 양상 두 가지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서 ‘교사 주도형’ 양상이 주로 발견되었다.

예비 교사들의 수업 목표 제시 양상을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예비 교사의 수업 실행 능력 제고 차원에서 학습 동기 유발과 수업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들을 다양화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 전략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예비 교사 교육의 실질적인 지도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국어교육, 수업 실행, 수업 목표, 예비 교사 교육, 학습 동기

<Abstract>

A Study on the Way of Presenting Learning Goals of pre-teachers in Korean Language Class

Chung, Min-ju

This study examined the way of presenting the learning goals of ones who will soon teach students in Korean language class for the goal to improve teaching ability of pre-teachers. Under the suggestions that the learning goals must be presented in line with motivation strategies for learners' to understand learning goals voluntarily, this study analysed the matters of their teaching-learning scenes.

As a result, it found out the differences in presenting learning goals utilizing motivation factors, and disposition types between learning goals and motivation activities. It was found that the pre-teachers used Attention, Relevance and Confidence factors in order to draw learning goals. In the cases where interests of learners were utilized and where interests and relevance of learners were utilized, it discovered a problem aspects. When the learning goals was shared by students and pre-teachers to achieve it effectively, 'teacher leading type' and 'teacher-student equality type' were found.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results are drawn. First, it needs to teach the way to link learning goals with motivation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teaching ability of pre-teachers. Second, it needs to teach effective instructional communication which leads students to understand learning goals with learning motivation.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ruction implementation, learning goals, pre-teachers instruction, learning motivation